

지역 소식통

김제경찰, 불법전단지 제작 근절 홍보 나서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최근 기초질서와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2차 범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전단지(성매매·추심·의약품 등)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경찰·지자체 등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생활 깊숙이 침투한 불법전단 근절을 위해 제작·배포에 대해 선제적인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광고 2022년 168건→2023년 250건→2024년 414건,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무단부착 2022년 4,452→2023년 5,665→2024년 6,557건 등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제경찰서는 22일 김제시내에 위치한 전단지 제조 광고업체를 방문해 성매매, 불법추심, 불법의약품 관련 광고물 제작은 범죄에 활용될 수 있고 성매매처벌법, 대부업법, 약자법 상 처벌 대상임을 설명하고 절대로 제작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홍보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중증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하계 야외회

김제시(정성주)는 22일, 전북 완주군 경천애인마을에서 중증정신장애인 등록회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재활프로그램 하계 야외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야외회는 지역문화화방 프로그램 일환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증정신장애인 회원 18명과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는 참여자의 정신증 증상을 극복하고,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적응 훈련의 의미도 담고 있다.

회원들은 볼놀이와 미니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대인관계 기술을 익히고 성취감을 느끼는 한편,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광활면 진흥마을회 효(孝)마을 만들기 본격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진흥마을회(대표자 안병현)가 '2025년 어르신 섬김 으뜸마을 인증사업'에 선정돼 지난 21일부터 '함께 웃는 효(孝)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내 효문화 확산 및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증진과 마을 공동체 의식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주 2회 건강체조 프로그램이 10회기에 걸쳐 운영되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건강과 활력 증진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힐링화분 만들기, 아로마 테라피, 실용적인 기방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련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과 여가활동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추억의 효(孝)잔치가 열린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 독자성장 전략 공유

##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반대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 자치권 수호·지역 미래 위한 공감대 형성... 주민소통 강화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지난 21일 동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 주최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완주군민의 자치권을 지키고, 완주의 독자적인 성장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통합 추진의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완주군의회에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7월 14일~25일) 기간 중 의사일정을 축소하고, 군의원 11명 전원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전 읍·면을 직접 찾아가 군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설명회는 동상면을 시작으로, 22일 경천면, 23일 상관면, 24일 운주면을 거쳐 8월 11일 소양면 등 완주군 전 읍·

면을 순회하며 오전 1회, 오후 1~2회씩 진행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저녁 간담회(오후 7시경)도 병행해 다양한 시간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촘촘한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군의회와 공식 입장 △완주·전주 통합 추진의 문제점 △익산·정주·청원 등 타 지역 통합 사례의 부작용 △완주의 독자적 성장 전략과 비전 등이 다뤄지며, 리플릿 배포와 질의응답을 통한 쌍방향 소통도 함께 이뤄진다.

서남용 특별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완주군민의 자치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라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 잘못된 통합 추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주민 동의조차 없이 강행되는 행정통합은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며, "완주군의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는 누구의 하위 행정구역도 아니며, 시·군 통합이 아닌 자립과 자치의 길을 걸은 당당한 지역"이라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완주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주민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완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지난 21일 동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전주 통합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남용) 주최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완주군의회 제공>

## 김제 순동 전원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박차

###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최근 '순동 전원마을 도로 확포장 2차분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사 구간은 순동 707-13번지에서 706-13번지까지 순동1길 235m 거리를 인접 토지주 보상 후, 기존 폭 약 4m에서 6m 정도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안길에 협소하다는 지역민원에 따라 지난 2024년도 1월에서 7월까지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차수분 공사를 발주해 1차분 공사는 지난 4월 14일에 준공했다. 시는 부족한 예산을 2회 추경에 확보해, 지난 2일 2차분 공사를 착공했으며 전체 공사는 25년 추석 전에 준공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순동 전원마을의 기존 마을안길 구간은 도로폭이 4m 내외로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길이 좁아 불편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원마을로 가는 길이 다소 승용이 트일 전망이다.



김제시 순동 전원마을 도로 확포장 2차분 공사 위치도. <사진=김제시청 제공>

순동 전원마을은 현재 13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한 교통 편의성 향상으로 순동 전원마을에 정착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순동 전원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공무원의 창의성·적극성, 시민이 직접 평가'

### 김제시,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온라인 투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8일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투표는 행정의 최종 수혜자인 시민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택함으로써, 김제시 전반에 적극행정을 확

산시키고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부서의 추천을 받아 총 개인 9건, 팀 2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실무심사를 거쳐 개인 6건, 팀 1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투표 대상에 올랐다. 시민과 직원은 국민신

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김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민투표 결과는 최종 선정에 30% 반영되며, 나머지 70%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최종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승급, △성적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파격적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폭염 속 농업인 지킨다... 김제시, 안전 365 캠페인 전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1일 백산면 전석마을을 찾아 '농업인 365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업인 365 안전 캠페인은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공유·확산하는 활동으로 전국 단위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생활 속 안전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안전한 농촌이더 우리 함께 실천해요!'라는 주제를 담아 여름철 폭염 대비

△무더운 시간대(오후 12시~오후 5시) 작업 중단, △나홀로 작업 금지,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등 구체적인 예방수칙을 전달했다.

시는 이와 더불어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집중 대응을 위해 폭염 시 농업인 행동요령 교육, 농작업 물용품 보급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Korea Int'l Tourism Show, KITS)에 참가해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했다.

## KITS어워드 마케팅 '최우수'

### 완주군, 국제 관광박람회 활약... 와일드앤로컬푸드 중점 홍보 구이저수지 치유길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 참여형 이벤트 진행

완주군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Korea Int'l Tourism Show, KITS)에 참가해 지역 대표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하며, 주최 측으로부터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KITS)'는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최신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국내 대표 관광·여행 전문 박람회다.

완주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오성향옥마을, 문체부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핵심 콘텐츠인 '시나브로 치유길' (구이저수지 둘레길), 지역 대표 축제인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를 중점 홍보하며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구이저수지 치유길 럭키드로우 이벤트'와 '시나브로 치유길 로고

송 부르기 SNS 챌린지' 등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완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 캐릭터 스티커 번호 맞추기, 게릴라 쿼츠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통해 부스 방문을 유도하고, 완주 관광의 재미와 매력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 같은 홍보성과를 인정받아 21일 열린 'KITS 어워드'에서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는 BTS 힐링성지이자, 천혜의 자연경관과 감성 콘텐츠를 품은 치유여행의 중심지"라며, "앞으로도 완주만의 독자적인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융합해, 국내외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 완주군, 휴가철 흥역 예방수칙 홍보 강화

### 이장회의·경로당 방문 등 통해 예방수칙 알려

완주군이 본격적인 여름철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흥역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개인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흥역 환자는 7월 5일 기준 총 65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46명, 베트남을 방문한 뒤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은 42명이었다.

흥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지만, 최근 일부 국가에서의 유행으로 인해 해외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완주군 보건소는 1마을 담당자와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경로당 방문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해외여행 전 흥역 예방접종 및 예방수칙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행 전 반드시 흥역 예방접종(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흥역 예방 국가 방문 전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이 권고된다.

여행 중에는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해외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유미숙 보건관리과장은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흥역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완주군,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본격

### 매장유산 훼손 방지 방안 수립

완주군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땅 속에 문화유산이 묻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곳을 뜻하는 것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매장유산 훼손 방지 및 합리적 보존 방안 수립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3억5,000만원(국비 2억5,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이 투입되며, 향후 270일간 추진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유존지역 정밀 지표조사 △유존지역 보존 조치 방안 수립 △유존지역도 제작 등 주요 사업 일정이 보고됐으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자문위원 및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완주군은 지난 2006년 제작된 '완주군 문화유적분포지도'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GIS시스템'에 등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매장유산을 보호해 왔으나 일부 정보 누락 및 수치지형도와 매장유산 유존지역 간 경계 불일치, 연속지적도 불부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완주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례유·봉동유·용진유·이서면 등 4개 읍면을 선정해 선사시대부터 한국전쟁(1950년) 이전까지의 매장유산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군이 직접 주관해 보다 일관되고 정확한 자료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청이 도·시·군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개발 행위가 활발하고 매장유산 분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